

“혁신도시, 연축만으로 부족”

정치골든칩 김찬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신대동 부지 통합 개발 필요
회덕첨단산단·트램 신설 강조



공공기관 이전
제외한 기관의
이전은 불가능
하다”고 말했
다. 그러면서
“연축동과 인접

하고 동일 생활권인 신대동 일원에
개발 가능한 부지의 통합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덕 지역에 중소규모 첨
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데, 교통 연
계성을 위해서 트램도 회덕역까지
연장해야 한다”며 “도로와 철도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비래동-신
구교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사업과
기반시설 확충도 우선적으로 앞당
겨야 한다”고 했다.

지리적으로 대덕구를 가로지르

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도
지속 강조하며, 김 위원장은 “예산
문제나 도로공사와 협의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문제점들을
하나씩 찾아 해결해 간다면 충분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가능하다”
면서 “동탄지구도 고속도로 지하화
해 도시발전을 이룬 사례가 있는
만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앞으로의 대덕구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고 했다.

상임위로 산업건설위원장을 맡
고 있는 김찬술 위원장은 ‘기업유
치와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를 강조하고 싶은 조례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대전시 인구가
145만여 명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유망기업들의 유치가 절실히 필요
하다고 생각했고, 대전시 기업유치
의 문제점을 개정하러 노력했다”며
“대전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투자한
회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폐단

을 막기 위해 지원 기업의 사업 이
행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기업인과
전문가 등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
소리를 조례에 담기 위해 노력했
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전과 대덕구의 비
전을 위한 키워드로 ‘미래먹거리’
와 ‘기업유치·창업기업 활성화’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대전의 지속
성장을 위해 미래먹거리 창출과 지
역 균형발전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
산업 육성과 대전 산업단지, 대덕
특구와 연구기관과 기업의 클러스
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덕은 첨단 4차산업의 메카로 성
장시키기 위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대덕산단 내 기계·부품
등 생산하는 기업의 노하우를 통해
혁신도시 등에 접목할 수 있다면
대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
을 것”이라고 했다. **이현제 기자**